

2021년 5월 28일 금요일 www.sportsdonga.com



세상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은 코로나19에 KBO리그도 직격탄을 맞았다. 지난해부터 누적된 적자가 엄청나다. 야구장 입장관중 제한에 식음료 섭취까지 금지시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다. 10% 관중만 입장한 인천 SSG랜더스필드의 을씨년스러운 전경.

작년 관중 32만…올해도 눈덩이 적자 1m 이상 떨어진 좌석에도 치맥 금지 소상공인 매출. 예전의 10%도 안돼 야구장 내 매장들 공실률 절반 넘어 720경기 중계, 방역 홍보엔 긍정적 중대본-KBO 미팅에 실낱같은 희망



특혜가 아닌 형평성을 바라는 외 침이 몇 달째 메이리 없이 맴돌고 있 다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

로나19)의 여파가 1년 넘게 이어지 는 가운데 프로야구장을 둘러싼 정부 지침은 여전 히 제자리걸음이다. '전시 행정' 수준이다.

### ● "주말 매출은 -98% 수준입니다."

지난해 대부분의 산업이 그랬듯 KBO리그도 역 대 최악의 한 해를 보냈다. 720경기 중 143경기 (19.9%)에만 관중이 입장했다. 거리두기 지침으로 관중은 32만8317명에 불과했다. 적자폭은 구단마 으로 삼는다는 지적도 있다.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다 상이하지만 평균 95% 내외다.

구단과 공생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마찬가지. 사직구장에서 5년째 매장을 운영 중인 A 씨는 "주 말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의 2~3% 수준으로 떨어 졌다. 평일을 포함해도 10%대 수준에 불과하다. 하 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

루 200마리를 팔던 치킨 매장은 한두 마리만 파는 실정"이라고 설명했다. 잠실구장에 입점한 B 씨는 "영업을 하면 수익보다 아르바이트 등 인건비가 더 든다. 영업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"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. 또 다른 업주 C 씨는 "공실률이 절반 이 상이다. 입점 공고를 내도 야구장 식음료 사업에 뛰 어들 이유가 없다"고 밝혔다.

### ● "전시 행정?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아라."

대다수의 야구계 관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지점 은 형평성이다. 테마파크, 백화점 등 대형 시설은 물론 일반 식당이나 주점도 사람들로 가득하다. 야구장은 여전히 제한(수도권 10%·지방 30%)에 갇혀있다.

야구단은 현금성 자산 비중이 극히 적고, 계열사 광 고 등 모기업 의존 비율이 절대적이다. 일부 구단은 대규모 대출을 받아 운영비 공백을 메웠는데. 같은 수 준의 대출을 내년에도 기대하긴 어렵다. 모기업의 지 원을 제외한 식음료부터 유니폼 제작 등 프로야구 산 업은 소상공인들이 지탱하는 구조다. 프로야구를 대 기업의 굴레에 가둬서는 안되는 이유다.

720경기 모두가 중계되기 때문에 전시행정 수단 중계가 송출되는 상황에서 식음료를 자연스럽게 섭 취하는 광경이 방역의식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

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. 질병관리본부장을 지

"10% 관중 입장은 지나친 규제"라고 강조한 뒤 "전 국민이 '코로나 블루'에 시달리는 상황이다. 이 가운 데 매일 중계되는 프로야구는 정부 입장에서도 오 히려 좋은 도구일 수 있다.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 면 야구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"고 말했다.

## ●보여주기, 봐주기가 아닌 들여다보기

18일 휴일을 맞아 NC 다이노스-LG 트윈스전이 열린 잠실구장에서 모처럼 '직관'을 했다. 백화점, 식당, 놀이공원 등 어느 공간과 견줘도 가장 철저한 수준의 방역이었다. 이미 1m 이상의 거리가 확보돼 있으니 식음료 섭취를 막을 이유도 없었다. 그러나 '떼창'도, '치맥'도 불가능하다. 5분만 걸어 야구장 앞 식당에 가면 더 좁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먹고 마 실 수 있으니 야구장은 '외딴 섬'이다.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(중대본)에서 실사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다.

유관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KBO와 꾸준 히 소통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을 찾고 있다. 다만 결정은 문체부나 KBO가 아닌 중대본의 소관이다. 다행히 중대본은 조만간 KBO와 관련 미 팅을 진행할 예정이다. 지금 프로야구산업에 필요 한 방침은 중계방송을 통한 '보여주기', 대기업 또는 소상공인 '봐주기'가 아닌 '직접 들여다보기'다.

> ▶ 프로야구 관련기사 2·3·4면 최익래 기자 ing17@donga.com

### K3 12위 팀에 무너진 전북, 날개없는 추락 왜?



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. K리그1 정규리그에서 6경기 연속 무승에 빠진 전 북은 2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3리그 양주시민축구단과 FA컵 16강에 서도 승부차기 끝에 무너지며 고개를 숙였다. 시무룩한 선수들의 표정이 모든 게

# 1 투자 소홀해진 프런트 2 전술 낙제 김상식 축구 3 열정 없는 배부른 선수

꽉 차면 기우는 법. 알렉산더 제국도, 로마도 무 너졌다. 흥망성쇠는 세상의 이치다. K리그1(1부) 최초 4연패, K리그 최다 8회 우승에

빛나는 전북 현대도 예외 없이 쇠퇴하고 있다. 강호 의 위용은 시라졌다. 그런데 쇠락의 속도가 상상 이상으로 빠르다.

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전북이 또 한 번 처참한 결과를 받아들 었다. '전주성'이 이번에도 상대의 놀이터가 됐다. 26일 전주월 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3리그 12위 양주시민축구단과의 '2021 하나은행 FA컵' 16강전에서 연장까지 득점 없이 비긴 뒤 승부 차기에서 패했다.

무대를 달리한 7경기 연속 무승(4무3패·승부차기 승패의 공 식 기록은 무승부)이라 더 충격적이다. 이미 뼈아픈 기록을 안고 있던 전북이다. 23일 대구FC와 K리그1 1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-1로 져 최근 리그 3연패 포함 6경기 연속 무승(3무3패)의 수렁 에 빠진 상태였다. 전북의 리그 3연패는 8년, 6경기 무승은 9년 만이다. FA컵마저 초반 조기 탈락, 그것도 하부 리그 하위 팀에 밀린 터라 고통이 배가 됐다. 거듭된 부진을 불운으로만 보기에 는 너무 심각하다. 부정적인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 과라는 지적이다.

### ●안일한 구단

구단의 준비부터 소홀했다. 예년과 달리, 보강에 소극적이었 다. 김승대, 최영준 등 임대생들의 복귀를 너무 기대해서인지 영 입이 적었다. K리그는 새 시즌을 앞둔 겨울 이적시장이 가장 중 요하나 전북은 일류첸코, 류재문, 이유현, 백승호 등을 데려온 것에 그쳤다. 그 중 성공한 카드는 일류첸코가 유일하다. 가장 기대를 모은 백승호는 평범한 수준이다.

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구단 정책의 미묘한 변화다. 어느 순 간부터 공격적이면서 과감한 투자가 사라졌다. 전북의 자금 운용은 '효율'에 초점을 맞춘 인상이 다분하다. 시즌 중 대안 없이 에이스를 이적시키는 일도 흔해졌다. 그간 "거부할 수 없는 제안"이라 포장했지만 최근에는 정도가 지나쳤다.

남장현 기자 yoshike3@donga.com

▶ 2면으로 이어집니다



# 속편하게 양배추

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

CJ 한뿌리 양배추&브로콜리 골드

• 식품유형: 과채음료 • 원산지: 양배추착즙농축액(양배추:국산), 사과농축액(사과:국산), 브로콜리농축액(브로콜리:국산),산사나무열매농축액, 매실농축액





### 제주산 양배추와 100%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.

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&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% 원료만을 사용했으며,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 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.



###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,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.

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.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.



###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.

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 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,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.



###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.

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.

특별이벤트

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(15만원 / 30만원 / 50만원 / 100만원)

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

080-091-9988